

몇 가지 약제의 잔디밭 이끼 방제 효과

양승원 · 이주영

한국잔디연구소

골프장의 그린에 발생하는 이끼는 대부분 은이끼(*Bryum argenteum*)로 밝혀졌다.

은이끼는 우산이끼목 우산이끼과의 이끼로서, 깎지 않았을 경우 높이는 5~10mm로, 작고 거의 분지하지 않는다. 잎은 촘촘히 겹쳐나며 넓은 달걀꼴이고 가운데가 몹시 오목하고 끝부분은 가늘고 뾰족하다. 잎의 가운데쯤부터 끝부분까지 엽록체가 없고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 빛을 반사해 잎의 끝 부분은 은백색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린 위에서는 낮게 깎아주므로 은백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04년 6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고온기에 몇 가지 약제의 잔디밭 이끼 방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약제는 이끼 방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 ion sulfate, copper sulfate, 차염소산나트륨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끼방제약제 알라딘엑스, 모스킬, 크린알지, 필드윈, 그리고 잔디용으로 등록된 농약중 타미나, 애임, 그린키퍼, 캐치폴 등 모두 11개 약제이다. 이들을 각각 1주일 간격으로 약 한달간 권장약량과 배량, 1/2배량으로 처리하였다.

처리결과 이끼에 대한 애임과 그린키퍼의 방제가가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애임의 약해가 그린키퍼에 비해 적었다.